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유아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렬 매개효과 검증*

The Longitudinal Effect of Maternal Warmth on School Adjustment of First Grade Children: Testing the Serial Mediation Model of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 and Peer Acceptance During Preschool Years

문영경¹

Young-kyung Moon¹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 and peer accept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warmth and first grad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979 seven-year-old children(498 boys, 481 girls) recruited for the Korea Child Panel Study. Data were analyzed by analyz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significance of serial mediation pathways using SPSS 18.0 and PROCESS Macro 3.4.

Results: Maternal warmth at age five effected perception of maternal acceptance at age six.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 at age six effected perceived peer acceptance at age six. Perceived peer acceptance at age six effected school adjustment at age seven. Lastly,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 and peer acceptance at age six had a serial mediation effect between maternal warmth at age five and school adjustment at age seven.

Conclusion/Implications: Perceived social acceptance during preschool years should be emphasized in order to promote school adjustment for first grade children. Parent education for promoting better parent child relationships should be considered and teachers should encourage peer play interaction to help children perceive acceptance from their peers.

* 이 논문은 2020년 대전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00171).

¹ 제1저자(교신저자)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부교수
(e-mail : moonyk@dju.kr)

key words maternal warmth, perception of social acceptance, first grader's school adjustment

I. 서론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시기에 아동은 학령기 아동으로의 지위, 역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며, 많은 발달과업에 직면한다. 이 시기에 아동은 학업과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도 형성해야 하는 학교 적응의 과업에 직면한다(지성애, 정대현, 2006). 이 시기에 적절히 학교생활에 적응할 경우 아동은 추후 초등학교 생활 전반의 적응과 학업 수행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성취능력을 보이게 된다(Hughes, 2011). 이에 많은 연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기의 경험과 특성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사전 중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유아기 시기의 가정환경(배한진, 허청아, 201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박정현, 이경님, 2020), 어머니의 우울(서보림, 한희수, 김태련, 조진실, 강민주, 2020), 아버지의 양육참여(강수정, 2021), 어머니-자녀관계(이진숙, 2004)와 교사관계(이진숙, 2004) 또래관계(이진숙, 2004), 또래상호작용(김창섭, 2020) 등의 개인 외적 특성과 학교준비도(박정현, 이경님, 2020), 외현화 문제행동(이정아, 최선녀, 문영경, 2020) 등의 개인내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요인들 중 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환경 맥락에서의 영향 요인으로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일관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은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회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김기홍, 이주리, 2010; 문혁준, 2010; 김원경, 권희경, 2019; 김충일, 2019; 차한솔, 김주일, 이호수, 2019; Domitrovich, 1998; Xiang, Liu, & Bai, 2017). 따라서 유아기 시기 아동이 경험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환경요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가족 맥락에서의 경험들이 학교와 같은 기관 맥락으로 연결되는 기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Domitrovich, 1998; Deater-Deckard & Dodge, 1997; Rohner, 1986), 가족과 기관의 맥락 사이를 연결짓는 기제로 아동의 지각과 인지과정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 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Deater-Deckard & Dodge, 1997)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거나 부모의 행동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인 반응이 실제 측정된 양육행동 보다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 내에서 아동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신생아기부터 영아는 자신의 몸의 촉감, 손발의 움직임과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이후 영아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환경과는 또 다른 존재라는 주관적 자기(I-self)를 발달하게 되며 영아기부터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에 대해 지각하게 된다(Harter, 1982). 이렇듯 아동은 영아기부터 어머니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을 지각하기 시작하며, 점차 유아기가 되면 아동은 또래, 부모, 신체에 대한 느낌, 학습 등 제한된 영역에서 자신에 대해 지각한다(Marsh, Ellis, & Craven, 2017).

사회적 수용감 중에서도 어머니 양육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어머니 수용감이다. 아동에게 의미있는 관계의 대상은 여러 인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중 어머니는 영유아기를 거치며 미시적 환경에서 아동과 가장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중요하다. Cassidy(1988)은 어린 유아의 자신에 대한 이해는 주로 관계의 맥락에서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관계의 맥락 속에서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통합된다고 하였다. 또한 한 연구(Domitrovich, 1998)에서 부모의 온정성과 지지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이러한 부모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이후 사회적 적응을 예측한다고 하였다(Domitrovich, 1998; Rohner, Bourque, & Elordi, 1996). 그러므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가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어머니 수용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어머니 수용감을 바탕으로 유아가 이후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이 뿐만 아니라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가정에서 벗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에게 의미있는 타자의 범위는 또래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Hartup(1979)은 가정과 또래 맥락이 “아동기의 두 개의 세상”이라고 언급하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사회화 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Waters와 Sroufe(1983)은 발달의 단계에 따라 개인이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영아기에는 효과적인 애착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유아기에는 또래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개인의 질에 따라 개인의 유능성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유아기는 또래 간 상호작용의 빈도와 복잡성이 증가되는 시기로, 유아기에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최현미, 2013), 또래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이후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Hartup, 1989, 1992).

또래관계의 지표 중에서 유아가 또래로부터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또래 수용도는 일반적으로 한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를 좋아하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개인을 향한 집단의 관점을 나타내는데, 유아의 적응 및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또래 수용도 혹은 또래집단 내 지위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특성이 있고(Howes, 1990), 유아기에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할 경우 이후의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dd, 2006). 그러므로 유아기의 또래 수용 경험은 이 후 시기의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대처하는데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래 수용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중요할 수 있는데, 또래로부터 지지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아동들은 실제로 또래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Patterson, Kuepersmidt, & Griesler, 1990), 또래 수용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역시 실제 또래수용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로부터 지지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아동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이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성취도 높지만(Dubow & Tisak, 1989; Dubow, Tisak, Causey, Hryshko, & Reid, 1991; Patterson et al., 1990),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은 낮은 또래수용감을 바탕으로 학교를 피하거나 학업 성취를 잘 못하는 등(장윤정, 신유림, 2010),

또래수용감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을 예측한다(Parker & Asher, 1987). 이렇듯 아동은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정도를 스스로 지각할 수 있으므로,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 또래수용감은 사회적 수용감의 또 다른 측면으로 유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후 시기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인기아의 어머니는 비인기아의 어머니에 비해 애정적이며, 자녀의 감정을 중시하고, 더 긍정적인 언어를 이유와 함께 설명하는 등의 아동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Denham & Grout, 1992; Pettit & Mize, 199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수용도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문혁준(2000)은 어머니의 합리적인 지도는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며,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 또래수용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수용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 뿐만 아니라 또래수용감은 실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할 수 있으나 실제 상호작용과는 달리 본인이 이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타인인 어머니에 대해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또래에게 수용된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인지이론(Anderson & Chen, 2002; Chen, Boucher, & Kraus, 2011)에 근거하여 가능하다. 대인 관계에 대한 사회인지이론가들은 중요한 타인과의 과거의 경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전이되고 통합되어 새로운 타인과의 관계를 지각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Chen et al., 2011). 즉, 인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전이되고,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의 기억을 통합하여 관계 내에서의 자기, 즉, 관계적 자기(relational self)를 형성한다고 한다. 관계적 자기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의 자기를 의미한다.

또한 애착 이론(Bowlby, 1973)과 사회인지이론(Dodge, 1993)에서는 아동이 생애 초기부터 내적 실행 모델, 지식 구조, 스케마라 일컫는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모델을 발달시켜 오는데, 이러한 내적 표상모델이 아동의 사회 인지 과정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패턴을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과거의 상호작용과 질적으로 유사하게 관계를 만들어 갈 가능성을 높인다고 가정한다(Sroufe & Fleeson, 1986). 그리고, 특정적인 관계, 특정적인 상대에 대한 표상으로 시작된 내적 표상모델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점차 자기와 사회적 세계에 대한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개념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맥락에 적용된다고 하였다(Shaver, Collins, & Clark, 1996). 이렇듯 애착이론과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해 볼 때, 어머니로부터 수용된다고 지각하는 유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수용된다고 지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형성한 또래수용감이 이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또래 수용감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 수용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측한다.

종합해 보면, 어머니로부터 온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지각을 토대로 학교생활에서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할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또한 자신에 대한 또래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또래

에게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며 이러한 지각을 바탕으로 이후 또래 및 학교생활에서의 여러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는 연구는 제한되어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Deater-Deckard와 Dodge의 연구(1997)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지각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hner, 1996). 또한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아동은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등 부모에 대한 수용감과 또래수용감 간의 관련성이 보고 되었으며(송순, 2002; Armsden & Greenberg, 1987; Stocker, 1994), 아동의 또래수용감은 학업성취, 학교 회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또래 관계 등 다양한 학교적응지표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윤정, 신유림, 2010; Dubow & Tisak, 1989; Dubow et al., 1991; Patterson et al., 1990).

그리고 Domitrovich(1998)는 부모의 온정적 적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과 또래관계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온정적 적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또래관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혔다. 또한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은 또래관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거쳐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Domitrovich, 1998; Rudolph, Hammen, & Burge, 199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아기 사회적 수용감의 역할을 밝히고 있지 않다. 유아기 사회적 수용감의 역할을 밝힌 Dapp과 Roebbers(2018)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업성취에 유아기 사회적 수용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나, 이 연구는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고 있어, 유아기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어머니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지각을 갖게 하며 이러한 지각이 타인, 즉 또래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기대가 이후 학교에서의 관계나 학업적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직접 증명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으며, 유아기 시기의 사회적 수용감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아의 사회적 수용감의 역할을 밝힌 연구들도 대부분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횡단 연구설계로 연구되어(심숙영, 2010; 유주연, 엄정애, 2012; 이정숙, 백지은, 2004), 변인들 간의 영향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색하여 유아기 사회적 수용감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구분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렬매개효과를 탐색하여 관련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며, 종단 설계를 이용하여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종속변인인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학교적응과 이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전 만 6세 유아기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수용감을 조사하며, 어머니 영향력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년 이전 시점인 만 5세 시점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을 측정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거쳐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 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의 역할을 명확히 함과 더불어 향후 초등학교 1학년 적응을 돕는 중재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직렬매개하여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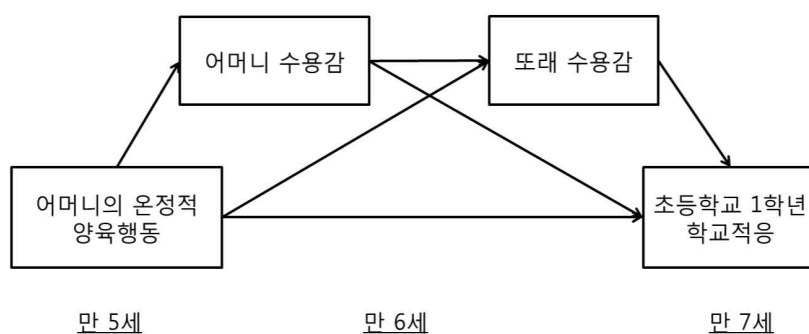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인인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5년도 자료를 포함하였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을 조사한 2014년도 자료와 어머니 영향력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년 이전 시점인 2013년도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3개년도 시점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유아 979(남아 498명, 여아 481명)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대상 유아의 연령의 범위는 만 5세 시기(T1) 60개월에서 66개월(평균 62개월), 만 6세 시기(T2) 72개월에서 79개월(평균 75개월), 만 7세 시기(T3) 84개월에서 92개월(평균 87개월)이었다. 만 7세 시기(T3)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0.29세, 어머니가 평균 37.82세였으며,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 337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도 대졸이 337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 종사자가 215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537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84명(18.8%), 사무 종사자가 112명(11.4%) 순이었다. 가계의 월 평균 수입은 301만원-400만원 미만인 254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401만원-500만원 미만인 237명(24.2%), 201만원-300만원 미만인 179명(18.3%) 순이었다.

2. 연구도구

1)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그리고 권희경(1999)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 중 온정적 양육 척도를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기꺼이 자녀양육을 수행하면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와 이야기 해주고 놀아준다.”,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더한 총점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6점~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4였다.

2)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은 Harter와 Pike(1984)의 역량 지각과 사회적 수용감 척도 중 일부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2단계 4점 Likert 척도로서 조사원이 남아/여아 각각의 그림 카드를 제시하며 질문하고 “oo는 누구와 가장 비슷하니?”라고 질문하여 유아의 응답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데, 유아에게 유능하거나 수용됨을 보여주는 그림과 그렇지 않은 2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선택하게 하고, 그 정도를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점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수용과 또래 수용의 12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요인 분석하여 요인 구조에 부합하는 어머니 수용 3문항, 또래 수용 3문항으로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측정하였으며, 어머니 수용에는 ‘이 아이의 엄마는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해 주셔’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래 수용에는 ‘이 아이는 같이 놀 친구들이 많아.’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더한 총점으로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측정하여, 가능한 점수는 어머니 수용감, 또래 수용감 모두 4점~1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어머니와 또래에게 수용되고 있는 정도가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 6세 시기의 어머니와 또래 수용감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어머니 수용감 .69, 또래 수용감 .65이었으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수용감을 합한 사회적 수용감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68이었다. 이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이선희, 이은경 그리고 박선영(2019)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6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3) 만 7세 시기 학교적응

만 7세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지성애와 정대현(2006)의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학교담임 선생님이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이다.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척도의 하위 요인 중 학교생활적응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응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다 심해진 질서 및 규칙에 대한 적응, 정해진 일과에 대한 적응,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적응 등의 내용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수행적응은 의사표현이나 활동의 의욕성, 수업시간에서의 활동과 모둠별 활동,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과제나 준비물의 준비를 잘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래 적응은 친구들과의 놀이에 관한 문항, 갈등 해결의 형태,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등의 내용으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 적응은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함,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함, 선생님께 인사를 잘함, 선생님께 도움을 잘 청함 등의 내용으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35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학업 수행, 또래 간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 7세 시기의 학교적응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학교생활적응 .96, 학업수행 .94, 또래적응 .94, 교사적응 .84, 전체 학교적응 .95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IBM Co.)과 Process Macro 3.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 및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직렬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모델 6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을 이용하였다. Bootstrapping 검증 시 모형의 샘플 수는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 구간은 95%으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왜도는 $-.71 \sim .11$, 첨도는 $-.52$ 에서 $.26$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의 변인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정적 상관관계($r = .11, p < .01$)가 나타났으며,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은 같은 시기 또래 수용감과

유의한 관련($r = .24, p < .001$)이 나타났다.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 = .14, p < .001$), 어머니 수용감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래 수용감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07, p < .05$).

표 1.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979)

변인		1	2	3	4
어머니	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1			
	2. 어머니 수용감	.11**	1		
아동	3. 또래 수용감	.05	.24***	1	
	4. 학교적응	.14***	.01	.07*	1
M		22.15	8.62	8.17	138.62
SD		3.21	1.58	1.41	24.61
Skewness		-.11	-.49	-.12	-.71
Kurtosis		.26	-.38	-.52	.23

* $p < .05$, ** $p < .01$, *** $p < .001$.

2.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렬매개효과

다음으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거쳐 순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3.4 프로그램 모형 6번을 사용하여 직렬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만 5세 시기 온정적 양육행동을 독립변인,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 또래 수용감은 매개변인,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처리하였으며,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을 제 1 매개변인으로,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을 제 2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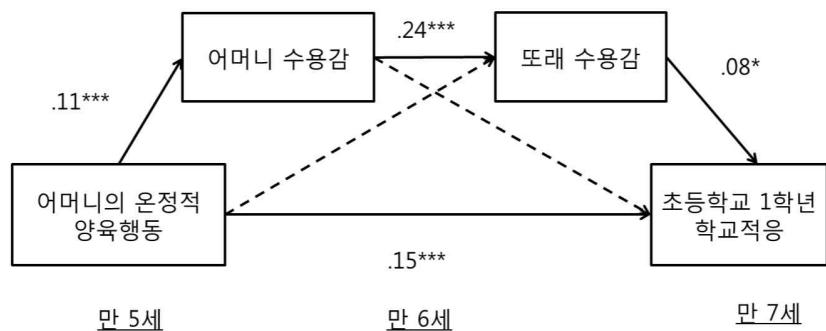
그 결과,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수용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1, p < .001$). 둘째,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수용감이 독립변인으로,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또래수용감이 종속변인으로 투입된 모형에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으로의 직접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02, ns$),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은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1, p < .001$).

셋째,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수용감,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이 독립변인으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투입된 모형에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으로의 직접 효과는 유의미하였다($B= 1.08, p < .001$).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수용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으로의 직접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25, p < .001$).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으로의 직접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65, p < .001$).

넷째,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결과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의 매개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 1.08, p < .001$),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수용감과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은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으로의 총효과, 직접효과, 직렬매개효과와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수용감, 만 6세 시기 또래수용감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총효과는 $B= 1.09 (t= 4.40, p < .001, 95\% CI [.60, 1.56])$ 으로 신뢰구간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B= 1.08 (t= 4.37, p < .001, 95\% CI [.59, 1.56])$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을 거쳐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렬매개효과가 $B= .02(95\% CI [.00, .04])$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을 거친 매개효과 ($B= -.03, 95\% CI [-.09, .03]$)와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을 거친 매개효과 ($B= .02, (95\% CI [-.02, .07])$)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형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의 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5$, *** $p < .001$.

그림 2.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2.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렬 매개효과 (N = 979)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95% CI		F	R ²
					LL	UL		
어머니 수용감	온정적 양육행동	.11	.03	3.34***	.04	.16	11.14***	.01
	또래 수용감	.02	.028	.81	-.03	.08	29.72***	.06
또래 수용감	어머니 수용감	.21	.028	7.53***	.16	.27		
	온정적 양육행동	1.08	.25	4.37***	.59	1.57		
학교적응	어머니 수용감	-.25	.26	-.98	-.76	.25	8.26***	.03
	또래 수용감	.65	.29	2.25*	0.08	1.21		
학교적응	온정적 양육행동	1.09	.25	4.40***	.60	1.57	19.42***	.02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 $p < .05$, *** $p < .001$.

표 3.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대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 (N = 979)

구분	B	SE	t	95% CI	
				LL	UL
총효과	1.09	.25	4.40***	.60	1.56
직접효과	1.08	.25	4.37***	.59	1.56
간접효과					
전체	0.00	.04		-.07	.08
X→M1→Y	-.03	.03		-.09	.03
X→M2→Y	.02	.02		-.02	.07
X→M1→M2→Y	.02	.01		.00	.04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5세 시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렬매개효과를 가정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온정/적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Domitrovich(1998)의 연구, 부모의

적대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수용 혹은 거부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Rohner 등(1996)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볼 때 가정환경에서 어머니로부터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경험한 유아들은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수용된다고 지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은 같은 시기의 또래 수용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지각과 또래 지각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Domitrovich(1998)의 연구,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Harter와 Pike(1984)의 연구와 일관하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모성에 지각이 또래 지위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송순(2002)의 연구와 일관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유아의 어머니표상이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 일반화되어 다양한 맥락에 걸쳐 적용된다는 애착이론(Bowlby, 1973)의 가정과 중요한 타인과의 과거의 경험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전이되고 통합되어 새로운 타인과의 관계를 지각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사회인지론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Chen et al., 2011). 이를 통해 볼 때 어머니로부터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유아들은 실제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만 6세 시기의 또래 수용감은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또래에 대한 지각이 학업성취, 학교 회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또래 관계 등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장윤정, 신유림, 2010; Domitrovich, 1998; Dubow & Tisak, 1989; Dubow et al., 1991; Patterson et al., 1990; Rudolph, et al., 1995)와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기에 형성한 또래 수용감은 이후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과정에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렬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어머니 수용감은 같은 시기 또래 수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렬매개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유아가 어머니에게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며, 이러한 유아가 또래에게 더 수용된다고 느낀다는 것이며, 또한 그 결과 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새로운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온정/적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또래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Domitrovich (199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기에 형성한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은 가족맥락과 학교 맥락을 연결시키는 잠재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또래 수용감으로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 수용감을 통한 매개 경로만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수용된다고 지각하는 유아가 또래로부터 수용된다고 느끼게 되는 관계적 자아의 형성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 수용감에서 학교 적응으로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또래 수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하는 간접 영향만 유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

는 연령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에서 또래로 중요한 타인이 분화되면서 유아기 시기의 중요한 관계가 어머니에서 또래관계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대한 어머니 수용감의 영향력은 또래 수용에 비해 줄어들 수 있다 (Anderson & Chen, 2002).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또래로의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는 발달적 과정에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과 또래 수용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관계적 자기를 형성하는데 있어 자신에 대한 인지는 역동적인 구조로 계속 변화하므로, 기존에 형성한 지각은 이후 시기 새로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에 전이된다(Anderson & Chen,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어머니 수용감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또래 수용감에 전이되며, 어머니의 수용감에 영향을 받은 또래 수용감이 보다 직접적인 사회적 수용감으로서 이후 시기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어머니 수용감이 또래 수용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통해 볼 때 어머니로부터 수용된다고 지각하는 유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수용된다고 지각하고 그 힘으로 유아들은 이후 시기 학교적응을 잘 하게 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를 준비하는 만 6세 시기의 유아들을 위한 중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어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어머니에게 수용되고 있다는 자신의 지각이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적 수용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적극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안에서의 부모 자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로부터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유아들이 제 1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지각과 함께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 향상은 이후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수용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부모와의 관계 향상이 제 1 과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실제적인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 자녀간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수용감은 또래수용감이었으므로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이 어려운 유아들의 경우 또래에게 수용되고 있다는 수용감은 이후 시기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들에게는 또래들 간의 즐거운 놀이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또래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지각을 통해 이후 시기 학교생활에서도 학교생활에서의 학급 친구들과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기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과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 역시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을 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만 5세 시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매개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해석력이 미세하며, 만 5세 시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으로의 직접 경로의 영향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있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학

습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동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독립성을 인정하며 의사소통 시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의 성취에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보고 이러한 행동을 학교생활에서 실제 적용하여 수업시간이나 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거나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인사를 잘하는 등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잘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매개로 한 경로의 해석력이 미세한 것은 유아기의 자아지각의 특성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유아기의 자아지각능력에 대해 타당성이 입증되었지만 아동기와 비교하여 불분명할 수 있으며 실제 행동과의 관련성도 낮을 수 있다(Harter, 1990a; 1990b), 그러므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대한 유아기 사회적 수용감의 영향력은 미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유아기부터 형성된 자기 지각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 근거해 볼 때(Skaalvik & Hagvet, 1990), 본 연구에서 밝힌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뿐만 아니라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으로의 직접 경로가 유의한 점에 대해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수용감의 매개역할이 아닌 제 2의 매개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다양한 변인들의 매개가능성이 있지만 먼저 역량지각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역량지각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학업적 역량지각은 실제 아동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Dapp & Roebbers, 2018),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인지능력을 매개하여 학업적 역량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Paulus, Licata, Gniewosz 그리고 Sodian(2018)의 연구에 근거해 볼 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역량지각 역시 매개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학교 적응과 역량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은 온정성 이외의 학습과 관련된 환경지원 등 다양한 역할이 있을 수 있겠다. 따라서 추후에는 어머니의 역할을 확장하여 온정적 양육행동 뿐만이 아닌 교육지원 등 다양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수용감, 역량지각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인지 및 신체역량지각은 아동의 학업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수용과 역량지각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등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아동의 또래상호작용을 매개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수용감에 영향을 받은 또래 수용감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어머니 양육행동,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또래 수용감,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관계에는 다양한 가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유아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되어 이러한 힘으로 이후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또래 수용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으로의 직접적 경로가 유의하였는데, 그 과정에 또래 상호작용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 자아지각은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신숙연, 2013), 또래에게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유아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고(이선희 등, 2019), 이러한 경험으로 이후 시기 학교적응을 잘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김창섭, 2020).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검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였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량 수집된 자료로 인하여 자료의 정교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원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을 때 신뢰도가 낮아 요인구조를 확인한 후 적절한 문항을 추출하는 작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선행연구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수용감에서 또래 수용감으로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어머니와 또래 수용감을 합산한 점수로 사회적 수용감을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이은해, 최혜영, 김미해, 1990; Harter & Pike, 1984). 그러므로 추후에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을 정교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두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관계적 자아에 근거하여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을 측정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적응에는 성, 아버지의 양육행동, 또래관계 등 (김충일, 2019),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또래 상호작용 등 다양한 변인의 매개 과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3년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영향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 영향력에 있어 2012년도 이전 자료를 통합한 종단연구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전 자료를 통합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중단적 변화가 유아기 사회적 수용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측정 가능성의 의문이 제기되었던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기 사회적 수용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여 실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유아의 주관적인 인지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고 그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21). 아버지의 유아기 양육참여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실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2), 173-183. doi:10.5723/kjcs.2021.42.2.173
- 김기홍, 이주리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기질 및 조화적합성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47-65.
- 김원경, 권희경 (2019).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4), 1-19. doi:10.35574/KJDP.2019.12.32.4.1

- 김창섭 (2020).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이 학교준비도를 매개로 초등 1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일 (201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아동, 부모, 교사의 특성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28(4), 171-187. doi:10.17643/KJCE.2019.28.4.10
- 문혁준 (2000). 또래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7), 39-52.
- 문혁준 (2010).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어머니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251-267.
- 박정현, 이경남 (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및 학교준비도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2(4), 91-110. doi:10.36431/JPE.12.4.5
- 배한진, 허청아 (2019). 유아기의 가정환경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차이. **육아정책연구**, 13(1), 75-99.
- 서보림, 한희수, 김태련, 조진실, 강민주 (2020). 취학 전 미디어 노출과 어머니의 우울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주의집중문제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2), 267-278. doi:10.6115/fer.2020.020
- 송순 (2002). 아동의 또래지위지각 관련 변인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0(2), 147-159.
- 신숙연 (2013). 유아의 자아개념과 또래유능성의 구조모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숙영 (2010). 유아의 낮은 자기역량지각과 또래 유능성, 놀이행동,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4(2), 271-292.
- 유주연, 엄정애 (2012). 유아의 놀이행동과 역량지각 및 사회적 수용감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7(1), 51-70. doi:10.16978/ecec.2012.7.1.003
- 이선희, 이은경, 박선영 (2019).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직렬매개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4), 37-57. doi:10.14698/jkce.2019.15.04.037
- 이은혜, 최혜영, 김미혜 (1990). 아동의 사회적 능률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유치원용 및 초등학교 1,2학년 용 척도-. **생활과학논집**, 4, 175-189.
- 이정숙, 백지은 (2004). 아동의 애착과 자아지각 및 행동문제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9(3), 149-168.
- 이정아, 최선녀, 문영경 (2020).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 적응의 종단적 발달경로: 어머니의 누적된 양육스트레스와 만 6세 시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24, 67-92. doi:10.37918/kce.2020.09.124.67
- 이진숙 (2004). 취학전 시기의 모-자녀관계, 교사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333-358.
- 장윤정, 신유림 (2010). 또래 괴롭힘 피해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자아지각 및 또래신념의 매개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10), 25-35.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0), 123-133.
- 지성애, 정대현 (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차한솔, 김주일, 이호수 (2019).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4), 41-55.
- 최현미 (2013). 유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분석: 기질, 어머니와 애착, 유아-교사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3(5), 67-87.
- Anderson, S. M., & Chen, S. (2002). The relational self: An interpersonal social-cognitive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09(4), 619-645. doi:10.1037/0033-295x.109.4.61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doi:10.1007/BF02202939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s olds. *Child Development*, 59(1), 121-134. doi:10.2307/1130394
- Chen, S., Boucher, H., & Kraus, M. W. (2011). The relational self.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149-175). New York: Springer
- Dapp, L. C., & Roebbers, C. M. (2018). Self-concept in kindergarten and first grad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n structure, development, and relation to achievement. *Psychology*, 9(7), 1605-1629. doi:10.4236/psych.2018.97097
- Deater-Deckard, K., & Dodge, K. A. (1997).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discipline revisited: Nonlinear effects and variation by culture, context, and gender. *Psychological Inquiry*, 8(3), 161-175. doi:10.1207/s15327965pli0803_1
- Denham, S. A., & Grout, L. (1992).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ping: Relations with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Monographs*, 118(1), 73-101.
- Dodge, K. A. (1993). Social-cognitive mechanism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and de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1), 559-584. doi:10.1146/annurev.ps.44.020193.003015
- Domitrovich, C. E. (1998).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child perceptions of parents and pe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ark, USA.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6), 1412-1423. doi:10.2307/1130931

- Dubow, E. F., Tisak, J., Causey, D., Hryshko, A., & Reid, G. (1991). A two year longitudinal study of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ontributions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3), 583-599. doi:10.1111/j.1467-8624.1991.tb01554.x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doi:10.2307/1129772
- Harter, S. (1990a).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self-representation: Im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treatment of maladaptive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2), 113-142. doi:10.1007/BF01176205
- Harter, S. (1990b).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M. La Greca (Ed.), *Through the eyes of the child: Obtaining self-reports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 (pp. 292-325). Boston, MA: Allyn & Bacon.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6), 1969-1982. doi:10.2307/1129772
- Hartup, W. W. (1979). The social worlds of childhood. *American Psychologist, 34*(10), 944-950. doi:10.1037/0003-066X.34.10.944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 120-126. doi:10.1037/0003-066X.44.2.120
- Hartup, W. W. (1992).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In H. McGurk (Ed.),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Contemporary perspectives* (pp. 175-20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owes, C. (1990).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from kindergarten to third grad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1*(3), 321-330. doi:10.1016/0193-3973(90)90013-A
- Hughes, C. (2011). *Social understanding and social lives: From toddlerhood through to the transition to school*. London, UK: Psychology Press. doi:10.4324/9780203813225
- Ladd, G. W. (2006). Peer rejection, aggressive or withdrawn behavior,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from age 5 to 12: An examination of four predictive models. *Child Development, 77*(4), 822-846. doi:10.1111/j.1467-8624.2006.00905.x
- Marsh, H. W., Martin, A. J., Yeung, A. S., & Craven, R. G. (2017). Competence self-perceptions. In A. J. Elliot, C. S. Dweck, & D. S. Yeager (Eds.),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Theory and application* (pp. 85-115).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Parker, J., & Asher, S. R.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doi:10.1037/0033-2909.102.3.357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5), 1335-1349. doi:10.1111/j.1467-8624.1990.tb02865.x

- Paulus, M., Licata, M., Gniewosz, B., & Sodian, B. (2018). The impact of mother-child interaction quality and cognitive abilities on children's self-concept and self-esteem. *Cognitive Development, 48*, 42-51. doi:10.1016/j.cogdev.2018.07.001
- Pettit, G. S., & Mize, J. (1993). Substance and style: Understanding the ways in which parents teach children about social relationships. In S. Duck (Ed.),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es: Vol. II.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pp. 118-151). Newbury Park, CA: Sage.
- Rohner, R. (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theory*. Beverly Hills, CA: Sage.
- Rohner, R., Bourque, S. L., & Elordi, C. A. (1996). Children's perceptions of corporal punishment, caretaker accepta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poor, biracial southern commun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4), 842-852. doi:10.2307/353974
- Rudolph, K. D., Hammen, C., & Burge, D. (199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lf, family, and peers in school-aged children: Links with social competence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6*(5), 1385-1402. doi:10.1111/j.1467-8624.1995.tb00941.x
- Shaver, P., Collins, N., & Clark, C. (1996). Attachment styles and internal working models of self and relationship partners. In G. Fletcher, & J. Fitness (Eds.), *Knowledge structures in close relationship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pp. 1-2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kaalvik, E. M., & Hagtvet, K. A. (1990).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concept: An analysis of causal predominance i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92-307. doi:10.1037/0022-3514.58.2.292
- St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51-71). Hillsdale, NJ: Erlbaum.
- Stocker, C. M. (1994). Children's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siblings, friends and mothers: Compensatory processes and links with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8), 1447-1459. doi:10.1111/j.1469-7610.1994.tb01286.x
- Waters, E., & St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 Review, 3*(1), 79-97. doi:10.1016/0273-2297(83)90010-2.
- Xiang, S., Liu, Y., & Bai, L. (2017).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nvestigating the Mediating Role of Achievement Goals within the 2 × 2 Framework. *Frontiers in Psychology, 8*, 1809. doi:10.3389/fpsyg.2017.01809

논문투고: 21.08.15

수정원고접수: 21.09.10

최종게재결정: 21.10.14